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홍 양 희
(한양대학교)

머리말

I. 자녀교육의 모범이자 여성교육의 귀감

II. 신사임당과 ‘현모양처’론의 조우

III. 군국의 어머니, 총후부인

맺음말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 투고일: 2016. 5. 6. ● 심사일: 2016. 5. 20. ● 게재확정일: 2016. 6. 15.

요약

이 논문은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이 재현되는 방식과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신사임당 담론에 작동하는 젠더 정치학을 고찰하였다. 러일전쟁 후부터 식민지시기에 이르는 근 40여 년간 신사임당은 무려 3번에 걸쳐 이미지 변신을 한다. 먼저 여성교육의 필요를 강변하기 위해 이율곡의 어머니로서 자녀교육을 잘한 ‘교육받은 여성’으로 의미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30년대에는 근대 비판, 전통에 대한 향수, 신여성 혐오 등 일련의 정치학이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현모양처’가 ‘전통’으로 재구성되고,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대표적 여성이 되어갔다. 나아가 식민지 말기 신사임당은 ‘군국의 어머니’, ‘총후부인’의 이미지로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현모양처라는 젠더 모델이 처음부터 국가/민족의 여성 젠더에 대한 호명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이의 식민주의적 전유는 처음부터 예정된 길이기도 했다. 결국 신사임당에 대한 담론적 재현은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연동되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들에게 젠더 역할을 강화하는 정치학이었다. 신사임당은 국가/민족 및 사회가 여성 젠더를 호명하는 방식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어떻게 다르게 재현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인물이었다. 더욱이 식민지시기 신사임당 담론은 ‘신여성’에 대한 혐오의 시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며 여성들에게 현모양처라는 젠더 역할을 강화하였다. 신여성 담론은 이후 1950년대 ‘아프레걸’/‘자유부인’ 담론, 그리고 현대의 ‘된장녀’ 담론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여성의 성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주제어 : 신사임당, 현모양처, 여성교육, 신여성, 젠더 정치, 군국의 어머니, 총후부인

머리말

한국 지폐 도안의 유일한 여성 인물은 다름 아닌 ‘신사임당’이다. 그녀는 2009년 6월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면서 그 도안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동안 지폐 도안을 장식하던 역사적 인물들이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세종대왕으로 이어지는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던 반면, 그들만의 영역에 여성이 처음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하나의 전환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신사임당은 5천원 권의 아들 율곡에 이어 지폐 도안을 장식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공식화 되었다.

그러나 신사임당이 지폐 도안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오히려 여성계가 신사임당 선정을 반대하며 인물의 교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성계의 반발은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다분하거나 혹은 그녀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사임당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표상되고 소비되어 왔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한국에서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성별역할분담을 정당화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사임당의 고향 집 오죽헌은 여성교육의 메카였고, 강릉에 세워진 사임당교육원은 여학생들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현모양처로서의 소양과 예절교육을 받던 교육 공간이었다. 여성계의 반발을 의식한 조폐공사가 신사임당은 “역사에 보기 드문 문화 예술인”이라는 점을 선정 이유로 부각시켰지만 논란이 그리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다.

지폐 도안의 여성 인물 선정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신사임당으로 표상되는 ‘현모양처’론이 가지고 있는 담론적 효과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다. 한국 사회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일정하게 용인하지만, 현모양처론은 여전히 한국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굳건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신사임당의 모습, 그리고 이미지는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신사임당은 여성 ‘예술인’이 되기도 하고 ‘현모양처’가 되기도 했다. 신사임당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겸비하고, 그 사회가 여성 젠더에게 요구하는 기대에 따라 그녀의 이미지 또한 연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사임당의 이미지 변화는 젠더 정치의 실상을 드러내는 주요한 주제이다. 신사임당은 학식 있는 전문가, 어머니, 아내, 딸로서의 위치 등 무엇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다양한 정체성의 소유자로 정의되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에 수시로 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사임당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기존의 담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을 본질화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담론의 내용 변화를 포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당대의 정치학을 전혀 분석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다른 하나는 신사임당에 대한 시대적 논의를 담론 정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다. 이숙인과 김수진의 연구가 있다. 먼저 전자의 연구는 조선후기에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이 역사화 되는 과정을 지식과 권력을 통해 생산된 담론의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¹⁾ 이에 따르면 16세기 인물인 신사임당은 4세기에 걸친 역사 속에서 화가 ‘신씨’에서 점차로 부덕과 모성성의 담지자로 형상화되었다. 17세기 자신의 학문적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맥락에서 이율곡을 현창할 필요가 있는 송시열에 의해 신사임당은 부덕을 갖춘 신부인으로 거듭난 이래, 18세기 담

1) 이숙인, 2008, 「신사임당 담론의 계보학(1): 근대 이전」, 『진단학보』 106.

론을 주도한 노론 인사들에 의해 그녀는 복송 이정(二程)의 어머니 후부인(侯夫人)에 비견되면서 성현 이율곡의 어머니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의 신사임당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야 할 모성성의 담지자로 재생되었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의 신사임당을 연구한 것은 김수진이다. 이 연구는 한말에서 식민지시기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신사임당이 역사적 국면마다 등장하여 조명되고 재해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²⁾ 그의 연구에 의하면 애국계몽기에 ‘규식여자’의 하나로 등장한 신사임당은 식민지말기 총동원체제 하에서는 ‘군국의 어머니’로 형상화 된다. 그리고 이후 사라졌던 신사임당은 1960~70년대 민족중흥이라는 근대화 프로젝트 하에서 ‘한국적 현모양처’로 부활하였다고 분석한다. 그의 연구는 신사임당이 국가 주도로 ‘전통’의 이름을 부여받은 ‘현모양처’로 발명되는 역사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신사임당이 현모양처로 처음 발명되는 것은 근대 비관과 전통론이 대두되는 1930년대이며, 그 후로도 쭉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로서의 이미지를 내려놓지 않았다.³⁾ 1950년대 특히 한국전쟁 후에도 신사임당의 현모양처론은 ‘아프레겔’/‘자유부인’ 담론을 구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기 때문이다.⁴⁾ 김수진의 연구는 신사임당과 현모양처론의 조우라는 측면에서 30·40년대와 50년대의 연속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신사임당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하여 현모양처로 재탄생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도 젠더를 둘러싼 담론정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현모양처

2) 김수진, 2008,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신사임당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0.

3) 홍양희, 2010, 「식민지시기 ‘현모양처론’과 ‘모더니티’ 문제」, 『사학연구』 99.

4) 김은경, 2006,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여성상과 신사임당의 조우, 그것이 근대 정치와 맺는 관계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는 젠더와 정치의 상호 연관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항 이후 식민지시기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에 신사임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현모양처는 언제, 그리고 왜 ‘전통적 여성상’으로 발명되어 신사임당과 만나게 되는지, 신사임당의 이미지는 당대의 정치 현실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I. 자녀교육의 모범이자 여성교육의 귀감

신사임당이 처음 근대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20세기 초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였다. 엄습해 오는 제국주의의 물결 속에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적 계몽 담론이 풍미하고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의 최대 화두는 부국강병이었고 문명개화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러일전쟁 후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자 이러한 요구는 더욱 절박하였다. 문명개화의 달성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줄기 빛과도 같았다. 일본은 이 점에서 따라 배워야 할 모델이자 극복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들의 부국강병이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서구적 근대화, 즉 문명개화로부터 달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말의 지식인들에게 문명개화는 명실상부하게 국가적이고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문명개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은 근대 교육이었다. 특히 러일전쟁 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근대 교육을 위한 지식인들의 열망과 계몽은 더욱 가열 찼다. 교육을 통한 ‘국민’ 양성이 국가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부강의 핵심적 요소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동경에서 발간되어 일본의 근대 문명을 한국에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 『태극학보』의 논설 역시도 부강한 국가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민 양성에 있다는 것을 강변하였다. “국민으로 국민의 책임을 다하여 국가로 하여금 부강 발달의 지경에 나아가게 함은 국가에 대한 의무”⁵⁾라는 것이다. 교육은 이 같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였다. ‘백성’을 ‘국민’으로 재탄생시키는 기능을 한 것이 바로 근대 교육이었던 것이다.

여성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문명화된 나라들과 같이 근대적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주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래의 국민 양성에 필요한 어머니, 질적으로 우수한 어머니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논설은 여성교육이 논의되는 방식,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일본 근대 여성교육의 목표인 ‘현모양처’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도 대략 이 시기였다.⁶⁾

一小兒의 將來 運命은 其母의 行爲에 在호며 一國民의 富強도 其 國民의 母에 在호다 호며 又曰 國民의 精神과 習慣과 偏僻과 特質과 德性이 各其 母一身에 在호다 호니 此는 吾人도 經驗自覺할 者라. 我東方에 偉聖孟子도 其母의 三遷之敎가 아니면 엇지 其名이 至今까지 赫赫不滅할 줄을 期호였

5) 張膺震, 「人生的 義務」, 『태극학보』 제2호, 1906년 9. 24., 20.

6) 일본에서 여성교육은 1899년에 고등여학교령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등여학교령의 산파인 樺山資紀는 1899년 7월에 고등여학교령 제정 이유를 “건전한 중등사회는 단지 남자교육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賢母良妻와 더불어 家를 다스림으로써 사회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여학교는 賢母良妻될 만한 소양을 행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優美高尚한 기풍, 溫良貞淑한 자성을 함양함과 더불어 중인 이상의 생활에 필요한 학술 기예를 知得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1901년에 취임한 菊池大麓 文相은 여학교 교육의 목적을 良妻賢母主義라고 규정하여, 그동안 ‘현모양처’와 ‘양처현모’가 혼용되던 이들 용어를 양처현모로 정착시키기 시작한다. 그 후 ‘양처현모’는 일본 여성교육의 정통적 목표이념이 되었다(樺山資紀, 1899. 7. 25, 「樺山文相地方視學官會議演說」, 『教育時論』, 22~23쪽. 深谷昌志, 1981, 『良妻賢母主義의 教育』, 黎明書房, 155~156쪽 재인용).

스리오. 然則 自古及今토록 偉人賢士의 盛名은 다 | 其 母親의 善良은 指導와 家庭教育의 起因造成은 者 | 實로 不少호도다. (중략) 家庭에 教育을 完美코져 호면 不可不 此에 主務되는 女子의 教育을 急히 發達호야 賢母良妻를 造成함에 在호도다.)⁷⁾

여성들이 교육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강변하는 위의 글에 의하면, 여성교육은 그녀가 후일 어머니가 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아이를 어떤 인간으로 성장시키느냐가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가정교육에 의해 국민의 부강, 나아가 국가의 부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성을 후일 어머니로서 자녀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였다. 그리고 그를 통해 탄생한 여성이 다름 아닌 ‘현모양처’였던 것이다.

여성교육이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사로 그 의미가 부여되자, 여성들을 교육의 현장으로 불러내야만 했다. 당시 양반의 딸들은 지식 교육보다는 집안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배우는 것으로 족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며, 하층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교육받는다든 것은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다.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들도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했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여기에서 주목된 것이 위대한 역사적 인물과 그의 어머니가 행한 자녀 교육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자식 교육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자식 교육을 잘한 여성 인물을 과거로부터 소환하는 것이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로 잘 알려진 맹자의 어머니였다. 위대한 성현으로 추앙받는 맹자라는 위인이 그의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는 일화는

7) 張啓澤, 『家庭教育』, 『태극학보』 제2호, 1906. 9. 24., 11~12쪽.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는데 호소력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여성교육을 위해 한글로 서술된 교과서, 장지연의 『여자독본』에는 그와 같은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장지연은 ‘모성’과 ‘부덕’이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행적을 보인 역사적 여성 인물들을 통해 여성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신사임당 또한 『여자독본』에 등장한 여성교육의 모델들 중의 한 명이었다. 여성의 계몽과 교육을 목표로 삼아 한글로 쓰인 이 책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론 격인 1, 2과가 있다. 다음의 3~11과는 ‘모덕(母德)’ 장으로 어머니의 도를 잘 실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들은 김유신, 정여창, 이항복, 이율곡 등의 어머니들로, 직접적인 행실이나 엄격한 가르침으로 자식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어머니의 표상으로 그려졌다. 세 번째 장은 ‘부덕(婦德)’으로 처의 덕행이 기술되었다. 온달의 처인 평강공주, 신숙주의 처, 유응규의 처, 인조의 비인 인열왕후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근검한 행실과 집안일을 잘 처리하여 남편 내조를 훌륭히 수행한 여성 인물들이었다. 30~52과는 ‘정렬’ 장으로 절개를 지킨 여성의 행실을, 53~64과는 ‘잡편’으로 논개나 계월향과 같이 절개, 허난설헌 같이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을 다루었다.⁸⁾

이 책은 어머니가 될 여성들을 교육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성의 계몽과 교육을 위해 편찬되었다. 그 지향하는 바는 이 책의 총론인 제 1, 2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자는 나라 백성 된 자의 어머니 될 사람이다. 여자의 교육이 발달한 후에 그 자녀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고로 가르침이 곧 가정교육을 발달시켜 국민의 지식을 인도하는 모범이 된다.”⁹⁾ 이는 이어진 2과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어머니가 학문이 없을 경우에

8) 문혜윤, 「해설 국민국가의 형성과 여성의 역할」, 8~9쪽. 문혜윤 편역, 『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여자독본』, 2012, 경진.

9) 장지연, 『여자독본』 상, 광학서포, 1908, 1~2쪽.

는 자식을 애정만으로 대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¹⁰⁾ 이것이 가정교육의 담당자, 미래의 어머니로서 여성들이 교육받아야만 이유였다. 신사임당은 제7과에서 ‘울곡의 어머니’로 소개되었다.

데칠과 리를곡 모친

문성공 울곡 이의 모친 신부인의 별호는 스임당이니 덕행이 구비하고 재예가 겸전하여 글씨와 그림이 또한 넷 지나 진나라 위부인과 갓흔지라 세상사름이 신부인의 그린 포도를 명화라 호느니 부인의 재덕이 이러함으로 그 아들 를곡 선생도 가평교육을 받아 일국의 명현이 되었느니라.¹¹⁾

위에서 신사임당을 소개하는 요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사임당이 재주와 덕행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때문에 가정교육을 잘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을곡이라는 위인이 나왔다는 것이다. 신사임당은 상당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받은 여성이 가진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 더욱이 조선시대부터 신사임당은 울곡의 훌륭한 어머니로서 명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이후 19세기에 이르면 신사임당은 ‘울곡의 어머니’로서 모든 사람이 우리러야 하는 모성의 담지자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다.¹²⁾ 이러한 인식적 기반이 있었기에 신사임당은 모범적인 어머니상으로 조선시대로부터 곧바로 소환될 수 있었다. 당시 신사임당은 지식적 소양을 갖춘 여성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입증하기에 최적화 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여성교육을 통해 탄생한 ‘현모양처’ 여성상이 ‘전통적 여성’ 그 자체는 아니었다. 여성교육에 대한 계몽과 그 목표로서의 ‘현모양처’는 근대 산업 사회 이후 성별역할분담을 내재한 서구의 젠더론

10) 위의 책, 3쪽.

11) 위의 책, 12~13쪽.

12) 이숙인, 앞의 글.

에 영향 받아 메이지 일본이 만들어낸 여성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모양처는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젠더 인식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식민지시기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들 양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창되었다. 조선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국민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식민주의자에게는 조선인의 최소한의 문명화와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근대 여성교육이 필요했다. 따라서 당시 문명화라는 사명에 의해 제기된 여성교육은 과거 한국 여성의 생활 방식을 열등한 것으로 위치지음으로써 그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조선의 기존 질서들이 부정되었고, 새 시대의 신문명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조선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하였던 것이다.¹³⁾

우리난 舊日 封鎖主義 內房主義 無教育主義에서 뛰어나와서 教育하여야 합니다. 우리 女息으로 하여곰 良妻되고 賢母되게 하여야 합니다. 女子의 教育은 이 良妻賢母되게 하난 것이 最大한 目的이외다. 보시오 自古로 英雄의 母가 英雄이 아니며 英雄의 妻가 英雄이 아닌 자 잇슴내가? 그런고로 女子를 不可不 教育지안이지 못하난 同時 그 父母난 반다시 이 良妻賢母되게 한단 것을 忘却하여서난 안이 되고 教育을 受하난 自身이 또 반다시 良妻賢母되다 하난 것을 沒覺하여서는 안이 되난 것이 외다.¹⁴⁾

과거의 조선 여성이 봉쇄주의, 내방주의, 무교육주의 상태에 있었다면, 여성교육과 그 결과물인 현모양처는 과거 유물의 청산이었다. 구여성과 대비하여, 신교육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수혜를 받은 여성이 현모양처였기 때문이다. “구(舊)를 버리고 신(新)을 환영하여 먼저 그 자제로 하여

13) 길진숙, 2004, 『『독립신문』·『미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 담론의 의미 층위』, 『국어국문학』 136권, 338~345쪽.

14) 閔泳大, 「女子教育에 就하야」(二), 『每日申報』, 1918. 7. 14.

금 신문명(新文明)에 목욕하고 세계조류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모양처는 결코 무식한 여자에게는 무가망 불가능”이기 때문이었다.¹⁵⁾ 여성교육의 이념으로서의 현모양처, 그리고 거기에 내재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 모델에는 구시대의 여성과는 일별을 고하는 것이었다. 결국 여성교육 계몽기라 할 수 있는 한말과 식민지 초중기의 ‘현모양처’는 근대 교육의 수혜자로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여성’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식민지 초중기만 해도 신사임당이 ‘현모양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담론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사임당에 대한 기사가 간간이 실리는 정도였다. 여기에는 그녀의 그림이나 글씨, 그리고 시가 소개되어 있어, 당시 신사임당은 주로 예술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매일신보』의 ‘일사유사(逸士遺事)’ 코너에서 신사임당은 어머니 모습보다는 그녀의 예술 및 지적 재능과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나 어릴 적에 경서와 사서를 섭렵하였다. 글과 그림을 잘 하였으며 7살에 이미 안견의 그림을 본떠 산수화를 그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¹⁶⁾ 그 후에는 ‘동시총화(東詩叢話)’란에 신사임당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그의 시 ‘사향(思鄉)’이 소개되었다.¹⁷⁾ 1925년 7월 『개벽』 지에서도 도쿄미술학교를 나온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로 알려진 고희동이 조선 13대 화가 중 한사람으로 신사임당을 꼽는다. “우리 미술의 자랑”, 특히 “그림”을 주제로 글을 쓴다는 그는 안견, 담징, 정선, 김홍도 등 걸출한 천재적 화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로 신사임당을 소개하였다.¹⁸⁾ 1930년대 말에는 ‘석년금일(昔年今日)’, 즉 ‘과거의 오늘’을 소개

15) 崔海朝, 「思想的 改新과 女子教育」(二), 『每日申報』, 1919. 6. 17.

16) 「逸士遺事(169)」, 『매일신보』 1916. 8. 10.

17) 「文苑: 東詩叢話」, 『매일신보』 1917. 11. 25.

18) 高義東, 1925, 「朝鮮의 十三大畫家」, 『개벽』 61호, 22~24쪽.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하는 코너에서 신사임당이 사망한 날을 기리며, 그녀의 특출난 지식과 재능,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탁월성에 대해 논하며 그녀를 애도하기도 했다.¹⁹⁾

이렇게 보면 식민지 초중반까지도 신사임당은 울곡의 어머니로서의 명망과 함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식민지시기에 이르기까지 예술인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좋은 본보기였다. 현모양처가 근대 교육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신사임당이 현모양처 여성상과 정합적으로 합치되지는 않았지만, 지식을 가진 여성이 가정교육/자녀교육에 탁월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신사임당은 여성교육의 필요를 강변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전격 소환된 역사적 인물이었다.

II. 신사임당과 ‘현모양처’론의 조우

1920, 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는 다양한 젠더 담론이 홍수를 이루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조선인에 의한 한글 신문과 수많은 잡지들이 발간되고, 근대 교육의 수혜자인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젠더 담론을 생산하기도 하고 몸소 실천하기도 하였다. 현모양처 양성이라는 여성교육의 이념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일군의 여성들도 출현했다. ‘신여성’으로 불린 나혜석, 김원주, 김명순 등은 조선 사회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에 경멸과 조소의 언어들을 쏟아냈다. 남성들에게 현부양부(賢父良夫)를 요구

19) 「昔年今日, 5월 17일」, 『매일신보』 1939. 7. 13.

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에게만 현모양처를 요구하는 것의 불합리함, 여성에게만 요구되던 정절이나 도덕관에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항 논리 또한 만만치 않았다. 현모양처는 인격적 평등에 기초한 일종의 성별분업으로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직분이라는 논의에서부터 생리학적으로 여성이 아이의 양육 및 교육에 적합하다는 모성 신화 등은 현모양처론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인식론적 기반이었다. 나아가 조선 민족의 발전이라는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허영숙이었다. 산부인과 의사이자 현모양처론자인 그녀는 조선의 흥망성쇠가 어머니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²⁰⁾ 여성을 “크고 무겁고 거룩하고 위대한 새 천직을 발견”한 “조선의 딸”, “새조선의 어머니”로 규정한다.²¹⁾ 비슷한 논의는 이은상에게서도 보인다. “결함만을 소유한 조선의 여성이기 때문에 결함만을 소유한 조선”이라는 묘사와 아울러, “조선 민족의 모성”, “조선의 어머니” 등의 언어를 통해 여성을 민족의 어머니로 규정한다.²²⁾ 이는 당연히 조선 민족의 장래가 어머니인 여성의 손에 달렸다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그가 후일 신사임당을 ‘민족의 어머니’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²³⁾

여성을 민족성과 동일시하는 젠더 담론은 1930년대 근대 비판의 분위

20) 아동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어머니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민족 발전에 필요한 어린이회 기르는 법」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1925년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연재되었다(허영숙, 「민족발전에 필요한 어린이회 기르는 법(1)」, 『동아일보』 1925. 8. 28).

21) 허영숙, 「각오하여 두어야 할 조선 여자의 천직」, 『동아일보』 1925. 10. 18.

22) 이은상, 「조선의 여성은 조선의 모성」, 『신여성』 1925. 6·7월호, 5~6쪽.

23) 이은상은 신사임당에 대한 기록과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1962년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을 출간한다. 그의 이 책은 박정희 정권 시기 국가 주도의 신사임당 담론을 만드는데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신사임당에 관한 담론들이 준거하는 원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수진, 앞의 글, 220~221쪽).

기 속에서 더욱더 힘을 얻기 시작했다. 모더니티 비판이 전면화 되면서 신여성이 ‘나쁜 여성’으로 의미화 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²⁴⁾ 당시 사회적 담론들은 신여성에 짧은 치마에 뽀족 구두를 신고 남자의 노력의 대가를 빼앗아 가는, 도적년 소리를 들어도 쌀만큼 천박하기 짝이 없는 동물들이라는 독설을 퍼 붙는다. 이는 신여성들이 가정 살림을 하지도 못하고, 하려는 의지도 없는, 즉 살림은 전혀 안중에 없는 여성들이라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신여성들은 “외래식 화장”과 “두발을 지지양(洋)머리”를 하고 다니는,²⁵⁾ 무분별하게 서구적 스타일을 맹종하는 ‘모던 병자’의 상징이 되어갔다. 더욱이 이들에 의해 표상되는 소비문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식민지라는 가난한 경제상황에서, 소비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모던걸, 모던보이는 병적인 것을 넘어 기형적이기까지 했다.²⁶⁾ 당시 ‘신여성’ 담론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현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은 동시에 ‘전통’에 대한 향수를 드러낸다.²⁷⁾ 특히 “나팔 통바지, 폭넓은 넉타이, 가다란 발모(髮毛), 더벅머리형의 두발”의 모던보이, “원숭이 궁둥짝같은 홍안, 핏빛같은 口紅, 제비고리같은 눈썹, 송곳같은 구두뒤축”의 모던걸,²⁸⁾ 그들의 외양에서 “전통의 그림자”를 찾으려 하는 노력은 ‘우리 것’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외국 문화에 밀려 “우리의 고상하고도 그윽한 맛이 있는 조선예법(朝鮮禮法)”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하여 동양의

24) 홍양희, 앞의 글, 327~331쪽. 신여성 비판과 현모양처의 전통화에 대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조하였다.

25) 辛泰嶽, 「現代 女性の 惡趣味」, 『삼천리』 제10권 제8호, 1938.

26) 壬寅生, 「모던이썸」, 『별건곤』 제25호, 1930. 1. 1., 139~140쪽.

27) 홍양희, 앞의 글, 331~334쪽.

28) 赤羅山人, 「모던數題」, 『신민』 59호, 1930. 7. 1.

전통, 특히 우리 조상의 교훈으로 다시 돌아와 조선 여성의 새로운 교양을 만들 것을 강변한다.²⁹⁾ 여성교육에는 무엇보다도 “재래의 아름다운 전통과 교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설되었다.³⁰⁾ 이것이 바로 “전통을 존중하는 이가 현모양처주의를 고집하는” 이유였다.³¹⁾ “기성적 현모양처주의”에서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적 차별”은 존중하면서, 그로부터 만들어진 “계급적 차별”만을 제거하여, 현모양처주의를 “이상적 여성도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현모양처’는 문명개화/계몽된 여성의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동양적 도덕/가치로 구성된 조선의 ‘전통적 여성’의 모습으로 재현되기 시작한다. ‘현모양처’가 ‘전통’으로 재정의 되는 방식은 과거로부터 현모양처의 모델을 소환하여 전형화하고 본질화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모성적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는 한편, 자식 교육의 모델을 과거에서 다시 찾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³³⁾ 부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칭호가 현모양처라는 한 필자는 이러한 여성으로 약봉(藥峯) 서성(徐滢)의 어머니 이씨(李氏)를 꼽는다.³⁴⁾ 동시에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 강감찬과 김부식의 어머니, 이후재 부인, 황봉의 처, 충무공의 부인 등이 현모양처의 역할 규범을 구현하고 있던 역사적 여성 인물들이었다.³⁵⁾

29) 金午星, 「女性的 敎養問題」, 『여성』, 5권 5호, 1940. 5월호.

30) 「좌담회: 고난속을 가는 여성-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여성』 4권 10호, 1939. 10월호, 24쪽.

31) 金樂泉, 「賢母良妻란 무엇인가.-忍從屈從의 뜻이 아니다」, 『실생활』 3권7호, 1932. 7. 獎産社, 11쪽.

32) 金樂泉, 위의 글, 9~10쪽.

33) 1932년 『동아일보』는 「어머니의 힘」이라는 기획 연재물을 통해 외국 어머니의 모델을 1월부터 시리즈로 연재한 후, 4월 21일부터는 “조선 어머니의 모델”을 연재하였다(「모성애는 거룩하다」, 『東亞日報』, 1939. 6. 23).

34) 沙雲生, 「盲目明視의 好賢母」, 『新家庭』 1935. 7월호, 74쪽.

35) 車相瓚, 「朝鮮史上的 名夫人列傳-其一 申師任堂」, 『家庭之友』 제2호 1937년 1월호.; 車相瓚, 「朝鮮史上的 名夫人列傳-其二 徐藥峰 母親 李氏」, 『家庭之友』 제3호 1937년 3월호.; 車相瓚, 「朝鮮史上的 名夫人列傳-其三 女流陰謀家 李厚載夫人」, 『家庭之友』

그 중에서도 특히 신사임당은 이러한 여성상을 구현하였던 최고의 선발 주자였다.³⁶⁾ 모더니티가 풍미하던 1920년대 신사임당은 그다지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 반면 1930년대 과거의 여성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재소환되기 시작하면서, 신사임당 또한 여러 필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가장 먼저 신사임당에 주목한 인물은 차상찬이었다. 그는 1931년 『신여성』 3월호에 “허정승의 누님과 이율곡의 어머니”라는 글을 써서 신사임당을 소개하였다. 그 후 1937년 “조선 역사상 명부인 열전”이라는 글을 『가정지우』에 연재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거론한 인물 또한 신사임당이었다.³⁷⁾ 그 외에도, 1934년 10월부터 『동아일보』에 “朝鮮心과 朝鮮色”이라는 연재물이 기획되는데, 신사임당은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³⁸⁾ 당시 신사임당에 대한 글들의 내용은 구체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을 경성제국 대학 법문학부에서 조선문학사, 그 중에서도 여류문학을 전공한다고 소개한 학생의 글을 통해 당시 신사임당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한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방면에 능통한 이를 들춘다면 (중략) 사대부가 부녀(士大夫家婦女)로는 오직 사임당신씨(申師任堂申氏) 한사람을 들 수 있

제4호 1937년 6월호 ; 車相瓚, 「朝鮮史上의 名夫人列傳-其四 千古列女 西江船夫黃鳳의 妻」, 『家庭之友』 제5호 1937년 7월호 ; 「용모보다도 지혜와 덕성 강감찬의 어머니」, 『家庭之友』 1938년 9월호, 22~23. ; 「세아들을 다 과거에 급제시킨 김부식의 어머니」, 『家庭之友』 1938년 9월호, 24~25. ; 「어머니독본-제6과 아동과 가정교육」, 『家庭之友』 1938년 9월호, 40~43. ; 「현부인 이야기-1.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참고 내조의 힘을 쓴 충부공의 부인」, 『家庭之友』 1938년 10월호, 10~11. ; 「현부인 이야기 2. 정절을 지키고 시부모를 받드는 유진아의 부인」, 『家庭之友』 1938년 10월호, 12~13쪽.

36) 홍양희, 앞의 글, 333~334쪽.

37) 車相瓚, 「朝鮮史上의 名夫人列傳-其一 申師任堂」, 『家庭之友』 제2호 1937년 1월호.

38) 金瑗根, 「朝鮮心과 朝鮮色(二)-율곡 선생의 모친 사임당 신씨」, 『동아일보』 1934. 10. 20.

다. (중략) 위대한 시인(詩人)이요 문인(文人)이요 서가(書家)요 교육가(教育家)요 경제가(經世家)가 될 사임당의 어렸을 적은 미래에 대한 촉망은 참으로 컸었다. (중략) 포도산수, 초충, 매화 등 자연생물을 그림의 대상으로 한 위대한 화가임을 알 수 있다. (중략) 사임당 전기에서 잊어서 안될 것이 어머니로서의 사임당이다. 사임당은 아들이 율곡 하나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러했다. 율곡밖에도 우로 선(璿) 변(璠) 두 아들과 아래로 우(禹) 한아들 형제를 낳아 다같이 사임당 스스로 교육을 시키었다. 모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들로 특히 넷째 아들인 우는 어머니 사임당의 정기를 타고나서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 조해가 깊은 중 특히 금서(琴書) 시(詩)를 잘하여 시인(時人)이 사절(四絶)로써 칭찬하였다. (중략) 역사적 사건을 터트린 유종 중 한사람인 율곡을 생각할 때 반드시 사임당을 생각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중략) 아들을 가르친 교육 현모(賢母)라는 자격으로 그러하다. 이와 같이 사임은 율곡을 가르쳤고 율곡 밖에도 모두 훌륭한 세 아들을 길러낸 현모이다 교육가다. 사임당은 현모에 그치지 않았다. 학업에 있어 공소한 자기 남편을 도와 평소에 실책이 없도록 하였다. (중략) 사임당은 남편의 기문 출입이 결말에는 좋지 않을 것을 알고 남편을 대하여 큰 화가 있을 것이니 기문 출입을 끊기를 간청했다. 이리하여 그 남편을 이기가 실패할 때 그 화판에서 구해냈다고 한다. 또 한 가지는 사임당이 자가 일찍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죽은 뒤 자기 남편이 재취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크나큰 불행이 있으리라는 것을 만단개유(萬端改諭)하였다. 사임당이 죽은 뒤 과연 재취를 아니 하고 자식을 위하여 가진 힘을 다했다 한다. 이 설화는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임당이 현모양처로서 위대했다는 일단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³⁹⁾

위의 글에서 신사임당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주목되는 인물로 그려졌다. 우선, 신사임당이 가진 예술적 재능과 학식에 대한 것이다. 신사임당은 경서와 사기 등을 통달하여 학문에 박학다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

39) 申龜鉉, 「율곡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 평전」, 『여성』 1939. 9.

수화 및 글씨에 예술적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다. 특히 문예와 미술에서 신사임당이 보인 예술적 재능은 알려진 것보다도 그 실상이 더욱 훌륭하였다는 평가를 했다. 보통 사람은 한 가지 재능만 있어도 대단한데, 신사임당은 글을 잘 짓는 문장(文章), 글씨 잘 쓰는 명필(名筆), 그림 잘 그리라는 명화(名畫), 자수를 잘하여 명수(名繡)라고 평가되었다. 한 몸에 네 가지 재주를 모두 겸비하였으니, “그 얼마나 고명하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찬란한 것은 다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였다.⁴⁰⁾

둘째, 자녀교육자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신사임당이 행한 가정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에 율곡만 언급되던데 그치지 않고, 네 아들이 모두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넷째 아들 우(瑀)가 당대에 이름을 떨친 명필이었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는 사임당이 가진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아 예술 분야에서 조예가 깊었다고 평가받았는데, 거문고를 잘 타고 시를 잘 지어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서법이 지극히 절묘했다고 전해지는데, 호마자(胡麻子), 즉 깨알에다 거북 구(龜) 글자를 쓰고 콩을 반으로 쪼개어 한편에다 오언절구(五言絕句) 한 수를 쓸 정도였다고 한다. 더욱이 그 자획이 매우 절묘하여 당시 선조가 그를 무척 아끼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율곡이 조선유교사상(朝鮮儒敎史上) 유종(儒宗)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특출 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주목받지 못하였을 뿐, 모든 아들이 사임당의 교육 덕분에 훌륭하게 자라났다는 것이다.⁴¹⁾

셋째, 남편에 대한 내조자이다. 그동안 신사임당의 모습이 ‘현모’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녀가 가진 ‘양처’의 모습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사임당이 자녀 교육자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실책이 없도록 현명한 내조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일화가 전해진다.

40) 金瑗根, 앞의 글.

41) 申龜鉉, 앞의 글.

하나는 을사사화의 주역인 이기(李芑)와의 관계를 끊게 한 일화이다. 덕수 이씨인 남편 이원수(李元秀)는 이기(李芑)의 동족으로 그 집안에 자주 출입하였다. 이기는 당시 영의정에 올라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때였다. 그러나 사임당은 이기가 무고한 선비들을 많이 죽이고 정권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결말이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남편의 그 집안 출입을 말렸다. 과연 사임당의 예측대로 이기는 죽은 후 봉호가 삭탈되고 묘비가 뽑히는 등 그 말로가 평탄치 않았다. 과연 신사임당의 간청을 받아들인 남편 이원수는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신사임당 자신이 남편보다 일찍 죽을 것을 알고 남편의 재혼을 말린 일이다. 이 일화에 의하면, 신사임당은 재주가 출중한 반면 몸이 허약하여 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죽을 것을 예측하고, 아들들의 장래를 위해 남편에게 다시 장가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신사임당은 일찍이 공자와 증자가 처를 버리고 다시 장가가지 않은 것과 주자가 47세에 부인이 죽었음에도 재혼하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며, 남편에게도 두 번 장가가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변하였다. 그 후 신사임당이 마침내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니, 이원수는 부인이 부탁하던 대로 혼인하지는 않고 첩만 얻어 일생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여 가진 힘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자신 사후 남편의 재혼을 막은 것이 ‘훌륭한’ 일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1930년대의 신사임당은 남편이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바른 길로 이끌었던 ‘내조의 여왕’으로 담론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화들이 흥미로운 것은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에 대한 당시의 해석이다. 신사임당이 양처로서 가지고 있던 지혜와 부덕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편 이원수를 재현하는 방식이 눈길을 끈다. 실제 이원수가 어떠하였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논의에서 남편 이원수는 사임당에 한참이 모자라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 남편은 학문이 부족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함으로 사회교제와 행세 범절이 어두웠다. 그럼으로 부인이 항상 간하고 지도해야 남에게 실수함이 적게 한 것을 보면 어진 부인이라 하겠다.”⁴²⁾ “그 남편은 학문이 부족함으로 모든 일에 망매(茫昧)하셨다.”⁴³⁾거나, “이 씨는 아직 학문이 천박하고 하는 일이 실수가 많음으로 부인이 항상 가르쳐서 내조를 하였다.”든지,⁴⁴⁾ “학업에 있어 공소(空疎)한 자기 남편을 도아 평소에 실책이 없도록 하였다”⁴⁵⁾ 등의 묘사가 그것이다.

결국 1930년대 신사임당은 이울곡뿐만 아니라 4명의 아들 형제를 모두 잘 교육시킨 ‘현모’, 부족한 남편을 현명한 길로 이끈 내조 잘하는 ‘양처’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이것이 신“사임당이 현모양처로서 위대했다”는 이유였다.⁴⁶⁾ 아울러 서구적 근대에 대한 비판과 전통론이 대두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현모양처가 ‘전통’ 및 ‘동양적 가치’로 재구성되면서, 신사임당이라는 조선시대의 여성이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발명되어 가고 있었다.

Ⅲ. 군국의 어머니, 총후부인

1930년대 ‘전통적 현모양처’ 상으로 표상되기 시작한 신사임당은 식민지 말기 다시한번 이미지 변신을 경험한다. 그것은 조선이 일본 제국의 총력전체제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다. 주지하듯이

42) 金瑗根, 『朝鮮心과 朝鮮色(其二), 율곡선생의 모친 사임당 신씨』, 『동아일보』 1934. 10. 20.

43) 金瑗根, 『詩, 書, 畫, 三全의 師任堂 申氏』, 『신가정』 1935. 9., 37쪽.

44) 車相瓚, 『朝鮮史上的 名夫人 列傳 其1-申師任堂』, 『家庭之友』 2호, 1937. 1., 4쪽.

45) 申龜鉉, 『율곡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 평전』, 『여성』 4권 9호, 1939. 9., 79쪽.

46) 申龜鉉, 위의 글, 79쪽.

1937년 중일전쟁 후, 일본의 제국적 질서에 포섭되어 있던 식민지 조선의 상황 역시 또 다른 전환기를 맞는다. 그동안 조선인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던 식민지 당국은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하고 조선인 남성을 선별하여 병력으로 차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와중에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전선이 태평양으로 확대되자, 병력 수급은 가장 급박한 현안이 되었다.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그들로 하여금 식민지에서의 병력 동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무교육 실시와 조선인의 황민화 정도에 대한 자신감을 병력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제로 삼고, 2·30년 후에나 가능하리라고 보았던 징병제를 일본이 서둘러 실시한 이유였다. 일본은 최소한의 준비 작업을 거쳐 식민지 조선에 마침내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1943년 징병 적령 신청을 받고, 1944년 4월부터 징병검사를 하여 9월부터 현역병들을 입영시키기 시작하였다.⁴⁷⁾

총동원체제가 되자 조선총독부는 여성들을 ‘총후의 부인’으로, ‘군국의 어머니’로 전쟁에 적극 동참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⁴⁸⁾ 일본에서도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 국가에 기꺼이 바치는 ‘성스러운 어머니’, 남편의 전사 통지를 송고하게 받아들이는 ‘엄숙한 전쟁미망인’의 모습으로 조국에 헌신하도록 독려되었다. “전쟁에서 죽을 수 없다는 굴욕”을 가진 여성이 ‘군신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군신의 영웅성에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⁴⁹⁾ 평시의 여성이 현모양처로서 제2의 국민 양성으로 국가의

47) 최유리, 2000, 「일제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12, 404~406쪽.

48) 일본이 조선 남성을 동원하려 할 때, 아들이 군대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어머니의 ‘가족주의’는 큰 장애물이었으며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여성들에게 일본 여성을 본받아 군국의 어머니가 되자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였다(이상경, 2002, 「일제말기 여성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연구』 2, 207쪽).

49) 우에노 치즈코, 1999, 『젠더와 내셔널리즘』, 박종철출판사, 27~29쪽.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다면, 전시의 현모양처는 군국의 어머니·총후부인으로 국가에 헌신하기를 요구받았던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시(戰時) 판 현모양처론’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젊은 남성을 전쟁에 동원하려 할 때, 특히 어머니의 존재는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었다. 지원병과 관련된 좌담회에서 김동환이 지원병뿐만 아니라 지원병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화와 계몽이라는 적극적인 선전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⁵⁰⁾ 그러므로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조선 여성들도 일본 여성들을 본받아 군국의 어머니로 거듭나자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징병령 시행을 앞두고는 여성교육을 맡고 있던 고등여학교의 책임자들이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역사적인 징병령 실시”에 대비하여, “군인의 가족으로서, 군인의 아내로서, 또 군인의 어머니로서 과연 어떠한 수양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⁵¹⁾

식민지 조선의 여성을 동원하기 위해 당시 조선총독부 또한 다각적으로 분투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의 문화 예술계가 적극 동원되었다. 전국 방방곡곡의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영화, 연극, 야담·만담 등 예술 문화 공연이 주요한 교화와 계몽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야담만담부대’의 활약은 실로 대단하였던 듯하다. 야담만담부대는 1942년 8월 춘원 이광수가 군보도부의 청탁으로 당시 야담계의 거장으로 불린 야담가 신정언을 ‘조선담우협회’ 사무실로 찾아가 교량적 역할을 하면서 결성되었다. 그동안 ‘군보도부는 1944년 징병

50) 「문화익찬의 반도체제 좌담회-금후문화부활동을 중심하여」, 『매일신보』 1941. 2. 12~23 ; 공임순, 「전시체제기 징병취지 ‘야담만담부대’의 활동상과 프로파간다화의 역할」, 『한국근대문학연구』 26, 2012. 434~435쪽.

51) 좌담회, “징병령과 여자교육”, 『조광』 1942. 11. ; 이상경, 앞의 글, 212~213쪽 재인용.

제 실시를 앞두고 징병제 취지를 널리 알리고 농어촌과 산간벽지에까지 보급 선전하기 위하여 이미 강연이나 만화 등으로 선전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야담 만담가들이 그 책무를 맡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다.⁵²⁾

이들의 순회공연은 징병제의 취지를 조선의 구석구석까지 알리고 선전하는 것이 목표였다. ‘말하는 교화 미디어’로 평가되는 그들의 일과는 공연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있는 빽빽한 일정이어서, 거의 자정이 다 되어 끝나는 날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⁵³⁾ 당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징병 독려를 위한 순회공연을 하였던 신정언은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상세히 전달하였다. 공연 일정, 공연 장소까지 도달하는 동안 겪었던 고생담, 그리고 공연장의 모습이나 청중들의 반응 등 공연과 관련된 다양한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1943년 1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109회에 걸쳐 연재된 “징병취지 야담만담행각(徵兵趣旨 野談漫談行脚)”을 통해서였다.⁵⁴⁾ 특히 1943년 3월 19일자 신문에는 ‘강원 편’이 실렸는데, 양양 및 강릉에 가서 행한 공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신정언은 여기에서 신사임당을 ‘군국의 어머니’로 적극 소환하였다.

공연을 유쾌히 마친 뒤 급한 마음으로 양양을 향하여 떠났다. 그것은 양양이 당일 야간 예정지인 까닭이다. 낙산사의 어렴풋한 자태들 멀리서 바람이 뺨을 스쳤다. (중략) 공영권(共榮圈)의 수호지가 될 반도의 징병령 취지를 듣게 되시는 부처님도 응당 아미 타불을 불으시며 환영하시는 줄 알았다. 장내에 운집한 4백여 명의 청중은 그 부처님과 같은 깨끗한 심전의 고투에 병역이란 씨를 잘 받아 장차로 천기만엽이 나올거리는 것과 같은

52) 공임순, 앞의 글, 438~439쪽.

53) 공임순, 위의 글, 440쪽. 야담·만담가들을 ‘말하는 교화미디어’로 규정하는 논의는 공임순에게 빌려왔다.

54) 공임순, 위의 글, 437쪽.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황군이 배출할 기개가 넘쳤다. (중략) 나는 공연의 첫 화제로써 “제군 우리 일행이 이 강릉에 이른 것은 한송정에 올라 송풍을 쏘이자는 것도 아니요 (중략) 오직 소화 19년부터 실시되는 징병제도의 취지를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럼으로 따님을 나시려던 신사임당과 같은 따님을 나시여 군국(軍國)의 어머니로서 받치고 (중략) 아들을 나시여 황국의 방패로 바치시기를 축(祝)하는 바입니다. 진충보국(盡忠報國)에 있어서 문무(文武)의 구별이 없을진대 율곡선생과 같은 아들을 나시여 황국문신(皇國文臣)으로 받치소서. (중략) 방금 황국중문(皇國重門)은 세 갈래로 통개되어 창해역사와 같은 용장(勇壯) 율곡선생과 같은 양상(良相) 신사임당과 같은 현모(賢母)가 이 반도, 반도 중에서도 이 강릉에 어서 들어오랍시는 성은(聖恩)이 내리셨습니다.” 55)

공연을 보러온 청중에게서 ‘황군의 기개’를 느끼는 야담가 신정언은 앞으로 실시될 징병제의 취지를 전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태어난 걸출한 인물인 신사임당과 이율곡을 통해 징병제를 선전하였다. 그는 신사임당에게서 군국의 어머니를, 이율곡에게서 황국 신민의 모습을 찾아낸다. 율곡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아 국가에 바치는 어머니의 전형을 신사임당에게서 이끌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공연이 있기 약 2년 전, 그는 이미 신사임당과 관련된 글을 발표한 바가 있었다. 이 글에서 신정언은 신사임당을 “현모양처(賢母良妻)의 대표적 여성”이자 “백덕백예(百德百藝)의 사표”, “동방의 여성(女聖)”으로 표현하였다.⁵⁶⁾ 그런데 신정언이 그려낸 신사임당은 1930년대 담론에서 보이는 그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신사임당의 개인적 품모와 품행, 즉 부덕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지조가 정결하고 행실이 단아하였

55) 申鼎言, 「徵兵趣旨 野談漫談行脚-江原 篇」, 『매일신보』 1943. 3. 19.

56) 申鼎言, 「百德百藝의 師表 申師任堂」, 『춘추』 1941. 3.

다는 것이다. 그녀가 행실이 고결한 선비인 아버지 신진사와 숙덕이 높은 어진 부인인 어머니에게 법도가 강한 교훈을 받고 자라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말이 적고 말을 하더라도 구절구절이 겸손하고 조심성이 흐를 뿐만 아니라 사리에 어긋나고 조리에 빠짐이 없어, 듣는 사람마다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둘째, 신사임당의 지극한 효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녀가 가진 여러 가지 행실 중에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가장 으뜸이 된다는 효성이 특히 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만일 부모가 병환이 나면, 신사임당은 본인이 먹고 자는 것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얼굴빛까지 초조하게 변하여 처음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녀가 마치 중병을 앓고 난 사람인 줄 아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강릉에서 사람들에게 신사임당은 ‘출천지대효(出天地大孝)’, 즉 하늘이 내린 큰 효자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어려운 역경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신사임당의 모습이었다. 신정언의 글에는 신사임당의 시집살이 이야기가 등장한다. 신사임당은 시집살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그 살림살이가 어려웠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집안의 형세가 궁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 이원수가 방탕하여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조금도 괴롭고 어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림을 잘 꾸려나갔다. 남편에게는 방탕한 것 고치기를 공손히 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 넷을 한 번도 꾸짖지 않고 반듯하게 가르치니 모두가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였다는 이야기였다. 더욱이 그녀의 이러한 범절을 본받아 동방(東方)의 성인(聖人)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사임당의 교훈의 꽃” 이율곡과 명필로 이름을 떨친 넷째 아들 우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신사임당은 “백가지 덕행과 백가지 예술이 모범”인 “현모양처(賢母良

妻)의 대표적 여성”이었다는 것이다.⁵⁷⁾

야담부대와 함께 문화 선전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것은 연극이었다. 연극계 또한 조선총독부의 전쟁 홍보와 병사 동원을 적극 지원하였다.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은 최고의 연극 주제였던 듯하다. 1944년 4월 25일 『매일신보』에는 4월 16일 진행된 고이소(小磯) 총독의 신문기자단 회견 내용이 실렸다. 이 기사에 의하면, 회견석상에서 총독은 “조선 부인은 모름지기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의 본을 뜨라”는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비로소 반도의 부녀의 나아갈 목표는 새로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며 어떤 덕행이 있었는가.”에 대해 동양극장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함께 전하였다. 즉 널리 세상의 부녀자들에게 신사임당의 덕행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녀의 전기를 연극으로 각색하여 공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⁵⁸⁾

신사임당을 주제로 한 연극은 송영의 희곡 “신사임당”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3회 연극 경연대회 참가작인 이 희곡은 총 3막 6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희곡이 동양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오른 것은 1945년 1월 29일 안영일 연출로 극단 ‘청춘좌’에 의해서였다. 송영은 이 연극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징병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를 그가 쓴 작품 의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징병제 실시로 반도의 황민화는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폐하의 고굉이 될 수 있는 커다란 감격을 가슴에 안고 용감하게 군문으로 달려가는 반도 남아의 의기도 충성스럽게 빛나지만 병사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성의 또한 충 자체의 현현이다. 그러나 둘도 없는 자기 자식을 충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로서의 힘이 위대해야 하고 용감해야 한다. 동

57) 申鼎言, 「百德百藝의 師表 申師任堂」, 『춘추』 1941. 3.

58) 「신사임당의 전기, 東劇이 연극으로 각색 준비」, 『매일신보』, 1944. 4. 25.

양의 현철 율곡선생님을 낳은 신사임당은 반도 뿐 아니라 전 동양 모성의 귀감이다.

필자는 평소에도 그 시대의 신사임당을 숭앙했으며, 그 전기의 일단을 극화하는데 있어 신사임당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현재 반도 전체 부녀들의 폐부를 찔러 ‘보다 나은 모성이 되어 씩씩한 자손을 나라에 바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를 염원한다.⁵⁹⁾

송영은 신사임당의 모성을 본받아, 조선 여성이 군국의 어머니로 거듭나 자신의 아들을 국가에 기꺼이 바치는 모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희곡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송영이 표현한 신사임당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를 희곡을 제출하면서 송영 자신이 요약한 희곡의 개요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사임당의 남편인 이원수는 아내의 미모에 매혹되어 학업을 게을리하고 가업을 돌보지 않았다. 이에 신사임당은 자신의 머리를 잘라 결심을 보여주면서 면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남편을 서울로 보낸다. 신사임당은 남편과 10년 동안 별거하면서 위로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아래로는 자녀교육에 온 힘을 기울인다. 특히 자녀교육에 몸소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율곡 형제들은 장래 훌륭한 인물이 될 소양을 쌓아간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틈을 내 그림을 그렸는데 님이 진짜 벌레라고 착각하여 부리로 쫓 정도로 그 실력이 출중하였다. 그런 반면 서울 간 남편 이원수는 기생집을 출입하며 주색잡기에 빠져 지냈고, 이 소문이 향리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인근에서 원수를 비난하는 소리가 컸지만 사임당은 오직 자신의 성의가 모자란 때문이라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12살의 율곡이 스스로 어머니의 그림을 가지고 상경하여 아버지

59) 송영, 1945, 희곡 “신사임당” 작의(作意). ; 이재명 엮음, 2004, 『해방전(1940~1945) 공연희곡집』, 평민사, 290쪽.

에게 간언하고 어머니의 그림을 놓고 돌아왔다. 이는 어머니가 시킨 것이 아니라 사임당의 부덕이 율곡을 통해 저절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감격한 원수는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에 힘을 쓴 결과 마침내 관찰사가 되어 돌아온다. 고향집에는 아버지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학문을 쌓은 율곡 형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현명한 부인, “신사임당의 성스러운 이름은 효녀로서, 양처로서, 현모로서, 그리고 여류 예술가로서 영원히 빛나게 된다.”⁶⁰⁾

이 회곡에서 신사임당은 남편 부재에도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 교육에 힘써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다. 전쟁이 일상이, 극한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총력전체제기의 신사임당은 기존의 그녀보다도 더 인내심 강하고 헌신적인 인물이 된다. 아울러 시련을 극복하는 신사임당의 모습과 연동되어 대비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 이원수였다. 1940년대 이원수는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있으면서도 주색잡기에 빠지는 ‘방탕한 인물’로 그려진다. 어려운 역경을 헤쳐 나가는 신사임당, 그녀가 ‘충후부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은 더욱 망가진다. 여기에서 아내의 ‘위대성’을 위해 남편이 아낌없이 추락하는 젠더 역설, 젠더 정치의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부재한 남편’, ‘남편을 부재’하게 만드는 전쟁이라는 척박한 현실을 의미하는 메타포를 그녀의 남편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고 “가족을 지켜낸 신사임당”은 아들들이 훌륭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입신양명하여 돌아옴으로써, 자기희생에 대한 확실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송영의 연극 “신사임당”은 막을 내린다.⁶¹⁾ 송영은 시련이 끝나면 영광스럽고 값진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달콤한 약속’ 또한 잊지 않았다.

60) 위의 글, 291쪽.

61) 정호순, 2005, 『국민문학에 나타난 모성 연구』, 『어문연구』 33-1, 337쪽.

요컨대 1930년대 ‘동양적 가치’로 재구성된 ‘현모양처’상은 ‘군국의 어머니’와 ‘총후부인’의 모습에 효과적으로 연동되었다. 신사임당 연극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조선총독부가 이 공연을 적극 지원한 것은 그녀가 당시 징병 선전에 필요한 아내와 어머니의 이미지 활용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부재에도 홀랑하게 자식을 길러내는 모성은 아들을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군국의 어머니’ 그 자체였다. 남편을 대신하여 가계를 책임지고 집안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전쟁에 나간 남편을 대신하여 후방을 책임지는 ‘총후부인’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맺음말

이 논문은 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이 재현되는 방식과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신사임당 담론에 작동하는 젠더 정치학을 고찰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현모양처’/‘전통’적 여성의 상징으로 생산·소비되어온 신사임당은 러일전쟁 후부터 식민지시기까지 근 40여 년간 무려 3번에 걸친 이미지 변신을 한다. 그녀에 대한 담론적 재현은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연동되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들에게 젠더 역할을 강화하는 정치학이었다. 신사임당은 국가/민족 및 사회가 여성 젠더를 호명하는 방식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어떻게 다르게 재현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주요한 인물이었다.

먼저, 조선후기 이율곡을 현창하는 과정에서 담론화 되기 시작한 신사임당은 20세기 초 재등장하였다. 1908년 장지연의 『여자독본』에서 ‘신

사임당’은 이율곡의 어머니로서 자녀교육을 잘한 ‘교육받은 여성’으로 의미화 되기 시작하였다. 애국계몽기 양질의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부강의 원천이라는 취지에서 근대적 교육이 강조되고, 아이의 양육과 교육의 담당자로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식을 가진 교육받은 여성을 지칭하는 ‘현모양처’ 육성이 여성교육의 목표가 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여성을 교육 현장인 학교로 불러내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역사적 위인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행한 자식교육이 본보기가 되었다. 신사임당은 지식을 가진 여성이 자식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때의 신사임당은 현모양처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현모양처는 신문명의 수혜자로서, 근대교육을 받은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가 강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사임당이 현모양처 담론과 직접적으로 조우하는 것은 1930년대이다. 모더니티 비판의 분위기와 그 반대급부로서 ‘전통’, 즉 동양의 도덕 및 조선적인 것에 대한 향수가 강해지면서 신사임당이 현모양처로 발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 담론이 생산되는 과정에는 ‘신여성’ 및 ‘모던걸’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 국가와 가부장제의 시선에서 서구화 되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 여성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여성들이었다. 이는 전통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신사임당은 동양적 부덕을 겸비한 현모양처의 대표적 인물로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반근대, 전통에 대한 향수, 신여성 혐오 등 일련의 정치학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현모양처’가 ‘전통’으로 재구성되고,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대표적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끝으로, 식민지 말기 신사임당은 ‘군국의 어머니’, ‘충후부인’의 이미지로 소비되었다. 이는 제국 일본이 총력전체제가 되면서 식민지 조선 또한 전쟁 회로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중일전쟁 후 전선이 태평양으로 확대되자 일본은 식민지에서 병력 동원을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에서 젊은 남성을 동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여겨진 어머니, 그리고 아내를 설득하는 방식을 모색하였다. 야담·만담이나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 공연이 징병제를 선전하는데 동원되었다. 이들 문화 공연에서 현모양처로서 ‘신사임당’은 병사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소임을 다하는 헌신적인 여성 그 자체였다. 현모양처라는 젠더 모델이 처음부터 국가/민족의 여성 젠더에 대한 호명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이의 식민주의적 전유는 처음부터 예정된 길이기도 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평시의 ‘현모양처’는 전시의 ‘군국의 어머니/총후부인’의 모델로 나아가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신사임당은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이미지를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부터 예술적 재능과 울곡의 어머니로서 이름을 날린 여성으로, 학식이면 학식, 전문 예술인이면 예술인, 어머니면 어머니, 아내면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소양을 모두 갖추고는 그 시대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 강약을 달리 반응하면서 젠더 역할을 강화해왔던 것이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정체성과 명망성 때문에 그녀는 호명 주체들, 즉 국가/민족, 그리고 식민주의자들이 가장 선호하던 인물이 되었다. 더욱 중요하게 신사임당 담론은 ‘신여성’ 담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며 여성들에게 현모양처라는 젠더 역할을 강화하였다. 신여성 담론은 이후 1950년대 ‘아프레겔’/‘자유부인’ 담론, 그리고 현대의 ‘된장녀’ 담론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여성의 성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모성애는 기록하다」, 『동아일보』, 1939. 6. 23.
- 「신사임당의 전기, 東劇이 연극으로 각색 준비」, 『매일신보』, 1944. 4. 25.
- 「좌담회: 고난속을 가는 여성」, 『여성』 4권 10호, 1939. 10월호.
- 金樂泉, 「賢母良妻란 무엇인가」, 『실생활』 3권 7호, 1932. 7월호.
- 金午星, 「女性の 教養問題」, 『여성』, 5권 5호, 1940. 5월호.
- 金瑗根, 「詩, 書, 畫, 三全의 師任堂 申氏」, 『신가정』 1935. 9월호.
- 金瑗根, 「朝鮮心과 朝鮮色(二)-울곡 선생의 모친 사임당 신씨」, 『동아일보』 1934. 10. 20.
- 沙雲生, 「盲目明視의 好賢母」, 『新家庭』 1935. 7월호.
- 송 영, 1945, 「신사임당」. 이재명 엮음, 2004, 『해방전(1940~1945) 공연회 곡집』, 평민사.
- 申龜鉉, 「울곡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 평전」, 『여성』 4권 9호, 1939. 9월호.
- 申鼎言, 「百德百藝의 師表 申師任堂」, 『춘추』 1941. 3월호.
- 申鼎言, 「徵兵趣旨 野談漫談行脚-江原 篇」, 『매일신보』 1943. 3. 19.
- 이은상, 「조선의 여성은 조선의 모성」, 『신여성』 1925. 6·7월호.
- 壬寅生, 「모던이즘」, 『별건곤』 제25호, 1930. 1월호.
- 張膺震, 「人生의 義務」, 『태극학보』 제2호, 1906년 9. 24.
- 장지연, 1908, 『여자독본』 상, 광학서포. 문혜윤 편역, 2012, 『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여자독본』, 경진.
- 赤羅山人, 「모던數題」, 『신민』 59호, 1930. 7월호.
- 車相瓚, 「세아들을 다 과거에 급제시킨 김부식의 어머니」, 『家庭の友』 1938년 9월호.
- 車相瓚, 「어머니독본-제6과 아동과 가정교육」, 『家庭の友』 1938년 9월호.
- 車相瓚, 「용모보다도 지혜와 덕성 강감찬의 어머니」, 『家庭の友』 1938년 9월호.

사학연구 제122호(2016. 6)

車相瓚, 「朝鮮史上的 名夫人列傳-其四 千古列女 西江船夫黃鳳의 妻」, 『家庭之友』 제5호 1937년 7월호.

車相瓚, 「朝鮮史上的 名夫人列傳-其三 女流陰謀家 李厚載夫人」, 『家庭之友』 제4호 1937년 6월호.

車相瓚, 「朝鮮史上的 名夫人列傳-其二 徐藥峰 母親 李氏」, 『家庭之友』 제3호 1937년 3월호.

車相瓚, 「朝鮮史上的 名夫人列傳-其一 申師任堂」, 『家庭之友』 제2호 1937년 1월호.

車相瓚, 「현부인 이야기 2. 정절을 직히고 시부모를 맞든 유진아의 부인」, 『家庭の友』 1938년 11월호.

車相瓚, 「현부인이야기-1.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참고 내조의 힘을 쓴 충부공의 부인」, 『家庭の友』 1938년 10월호.

허영숙, 「각오하여 두어야 할 조선 여자의 턱직」, 『동아일보』 1925. 10. 18.

허영숙, 「민족발전에 필요한 어린아희 기르는 법(1)」, 『동아일보』 1925. 8. 28.

공임순, 2012, 「전시체제기 정병취지 ‘야담만담부대’의 활동상과 프로파간다화의 역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6.

김수진, 2008,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신사임당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0.

김은경, 2006,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우에노 치즈코, 1999, 『젠더와 내셔널리즘』, 박종철출판사

이상경, 2002, 「일제말기 여성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연구』 2.

이숙인, 2008, 「신사임당 담론의 계보학(1): 근대 이전」, 『진단학보』 106.

정호순, 2005, 「국민문학에 나타난 모성 연구」, 『어문연구』 33-1.

최유리, 2000, 「일제말기 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12.

홍양희, 2010, 「식민지시기 ‘현모양처론’과 ‘모더니티’ 문제」, 『사학연구』 99.

Abstract

Shin, Saimdang, the Symbol of ‘a Wise Mother and Good Wife’: the Representation of Shin, Saimdang and Gender Politics

Hong, Yang-Hee

This paper examined the gender politics operating on Shin, Saimdang discourses through searching for variability of representation on her. The Image of Saimdang had undergone the transformation three times for about forty years from 1905 to 1945. Firstly, She was called the ‘educated woman’ who well trained her children at home as Lee, Yulgok’s mother in order to argue the necessity of education of women. Secondly, Saimdang encountered the discourses on ‘a wise mother and good wife’ and was invented as a traditional and ideal woman, that is a wise mother and good wife in 1930s. There were historical contexts regarding the critiques of western modernity, nostalgic moods of past, and disgust of so-called ‘new woman’. Lastly, She was spent as the symbol of ‘militaristic mother’ and ‘woman in the rear ground’(銃後婦人). It was naturally colonialistic appropriation which stems from national demanding of women. These discursive representations of Shin, Saimdang were connected with political context at that time and Those were the politics reinforcing gender roles. In short, the images of Shin, Saimdang were reconstructed according to national or colonialist demanding. Futhermore, Shin, Saimdang discourses together with ‘new women’ discourses have reinforced gender identities in

사학연구 제122호(2016. 6)

colonial Korea. In particular, the discourses on ‘new women’ continued to ‘après-girl’ or ‘Madame Freedom’ dicourses in 1950s and ‘Doenjang girls’[soy bean paste girls] dicourses in contemporary days.

Keywords : Shin Saimdang, a wise mother and good wife, education of women, new woman, militaristic mother, woman in the rear ground, gender politics